목어

불교와 문명충돌



최근 러시아에서는 테러범들이 극장 관람객 수백명을 인질로 삼았으며, 이에 대응하는 당국이 치명적인 가스를 사용하므로써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테러, 인질극, 핵 등 섬뜩한 말이 신문지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고, 규모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굳이 그 이유를 문명충돌이라고 하는데, 그 실상은 십자군전쟁 때의 종교대립과 같은 구도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탄의 분쟁은 이슬람과 유대교의 갈등이며, 미국과 이라크의 대립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이다.

특히 러시아와 체첸의 갈등이 다시 크게 부각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 또한 종교대립에 귀착시킬 수 있다. 요컨대 문명충돌은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사이의 상호 불신으로 야기된 것이다. 이들이 떠받드는 신은 같은 절대유일신인데도 그 대리인 즉, 예언자의 해석 차이가 인류사적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도에게 예수는 최후의 예언자인데, 유대교에서는 아직 최후의 예언자는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슬람교는 마호멧이 유일한 예언자이다. 저마다 예언자의 절대유일성을 내세울 때 타(他)는 이단이자, 악마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불교에서는 절대성을 내세우지 않는다. 특히 원효대사의 화쟁사상(和諍思想)은 종교적 신념 차이를 극복하는 것으로 평등하고 차별 없는 일심(一心)에 근거를 두고 있다(十門和諍論). 종파 차이는 편견에 불과한 가설의 결과라는 것이다.

종교충돌의 양상은 수학의 입장에서는 공리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수학은 이미 "수학진리는 한낱 가설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다. 이렇듯 불교와 수학은 한결같이 진리(공리)를 절대화하지 않으며 방편(가설)에 불과함을 알아차리고 있다. 너의 신과 나의 신 모두를 방편으로 여긴다면 갈등은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 수학은 공리를 설정하지 않은 카오스 이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현실세계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세계관에 입각하는 것이다.

인류문명사는 절대성을 부정함으로써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고 있는데, 유독 국제역학은 낡은 세계관을 내세움으로써 온갖 비극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본지 논설위원)

이렇게 들었다

'우바이를 천하다 말라'

성차별

여성부는 4일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남녀의 차별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차별금지기준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여성에 대해 미혼일 것을 요구하거나 결혼시 퇴사를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 남녀를 구별하는 여비서, 남기사 등 특정 성별을 가리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게 됐다.

그 동안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최근 초등학교 남녀학생 성비가 100:108까지 악화된 것은 남녀 차별이 인간의 자유로운 탄생까지도 막기 때문이다. 또한 아들을 낳기 위해 여자 아이를 임신한 겨우 낙태까지 한다는 것은 남녀 차별이 결국 생명 경시 풍조까지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법제도의 개혁이 모든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남녀 차별이 해소될 것이다.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은 불법이라는 바다에서 평등하다. 증일아함경

▧아난아! 나에게 평등한 대비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바이(저가 여신도)를 천하다고 말하지 말라. 대방광불보은경

▧일체의 국토가 허공과 같으므로… 나는 이렇게 일체의 세계가 같고, 일체의 중생이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청정비니방광경

▧여래의 처소에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면 김씨, 이씨 등의 성은 없어지고 오직 사문 석가의 자식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여래중(衆)은 마치 큰 바다와 같기 때문이다. 증일아함경

불자 세상보기



성태용
건국대 교수
철학과

열명의 죄인을 놓치게 되더라도…

"광화문 네거리에 흉악범, 파렴치범들을 일렬로 세우고 대규모의 총살형을 집행하였다. 그 처참한 광경이 전국의 방송망을 타고 생중계되었다. 그러한 광경을 생생하게 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범죄에 뒤따르는 잔혹한 처벌에 대하여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뒤 대한민국 사회는 범죄가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되었다."

너무 놀라지 마시라. 가상의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이 가상의 이야기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는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혹 사회의 범죄현상과 병리현상에 대하여 심한 분노를 느낄 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농담으로라도 던져 보신 분은 없는지? 물론 이런 일은 실현될 수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지에 대하여 어떤 논리적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제시하기 전에 약간 시각을 바꾸어 우리 목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들어보자.

"강도를 붙잡으려던 시민이 강도로 오인되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서울지검 피의자 조모씨의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참고인 상당수가 폭행 등의 고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언론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앞에 든 가상의 이야기와 이 현실의 이야기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가에 대한 위의 문제에 대한 답과 아래의 문제에 대한 답은 같은가 다른가? 같다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얼핏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야기 같지만, 위에 두가지 사례는 우리 국민이 알게 모르게 지녀오게 된 하나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하면 된다!"는 말이 대변하는 사고방식이다. 어떤 일은 하면 안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결과만 내면 된다는 사고방식,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현실적인 것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서울지검의 한 수사관이 "솔직히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의 경우 손을 좀 대더라도 성과만 내면 별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 사회의 치안담당자들에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과연 그렇게 하여 원하는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있는 것일까? 절대 아니다. 그러한 잔혹한 일은 우리의 마음에 잔혹성과 인명을 경시하는 업의 씨앗을 심게 된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심겨진 잔혹한 마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잔혹한 일들을 빚어 낼 것인가? 그러기에 열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죄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들 개인, 또 우리 사회의 마음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 사회가 근원적으로 맑아질 것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녀야 할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이상적인 사회를 싹틔워 낼 우리들의 '마음'이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선우도량은 1일 남원 실상사 화림원 강당에서 '초기불교 승가의 수행과 수행환경'을 주제로 제6회 선우논강을 열었다. 고우스님(각화사 선원장)을 증명으로 초빙, 재연스님(실상사 화림원)이 발제한 이날 논강에는 중진스님과 선·강원의 스님 60여 명이 참석, 현 승가와 수행방법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승가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와 풀어야할 과제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토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했다.



제6회 선우논강
초기불교 승가의 수행과 수행환경
일시: 2546(2002)년 11월 1일(금) 장소: 지리산 실상사

◇1일 실상사에서 열린 선우논강에서는 현 승가와 수행법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부처님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 승가의 역할을 일깨우자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박봉영 기자

초기불교 승가의 수행과 수행환경 선우논강 紙上중계

"누굴 계도하기는 커녕 오도 안했던가"

발제 재연스님(실상사 화림원 원감)



승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처한 환경을 바르게 조망하는 안목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 추구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바른 세계관과 제대로 사는 삶이 무엇이며, 거기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진지하게 자신을 향해 묻지 않을수 없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가? 누군가를 계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오도하거나, 최고, 최대, 제일주의의 선봉에 서서 경쟁과 분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정의를 말하면서 불의에 눈감아 버린다. 자비는 경전에나 써있는 문자일 뿐이며, 보시는 오직 재가불자들이나 할 일이다. 비폭력을 말하면서 거칠기 짝이 없다. 하심을 말하면서 군림하고자 하며, 닭벼슬보다 못하다고 하면서도 하찮은 소임에 연연한다. 두타행을 말하면서 먹거리를 두고 투정한다. 무소유를 말하면서 더 갖고자 두리번거린다. 화쟁은 자기 문중에나 적용되는 고상한 말이다. 열린 공동체를 말하면서 귀는 굳게 닫혀있고, 파사현정을 말하면서 시비하지 말라고 훈계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승불교를 논하고, 어느 강백, 아무개 율사, 선사의 몇 대 법손이라며 제발 공경해달라고 애걸한다.

진리의 강은 언제부턴가 그 도도했던 흐름을 멈추고 역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우리 승가는 고여있는 호수이기 보다는 흘러가는 작은 시냇물이어야 한다. 묵은 물이 새 물일 수 있는 까닭은 철저한 자기 비판정신과 외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끊임없이 거듭나려는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직되지 않은 대승의 시각으로 고타마 붓다의 근본불교를 다시 보는 일이다.

집중위주의 명상 수행은 숱하게 많은 수행법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일 뿐이다. 보다 넓은 의미의 수행이란 특정한 견해의 틀을 벗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온갖 형태의 노력과, 사물의 실상에 부합하는 실천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깨달음을 향한 노력일 뿐 아니라, 깨달음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고타마 붓다가 생각한 승가의 구현은 오직 연기법의 바른 이해와 실천으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상을 구원할 이 영원한 진리를 천착하고 실천하며, 시대에 어울리게 풀어내는 일이 우리 모든 불자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이다.

철저한 자기비판·외적변화 능동 수용해야
대승적 시각으로 붓다의 근본불교 다시 보자

토론 "부처님을 팔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 승가공동체는 무려 2,500여년간 유지되어 온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이다. 법 때문에 유지되어 올 수 있었는데,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다. 승가에 떠도는 말 중에 '선지식은 멀리서 봐야 선지식이지, 가까이서 보면 선지식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후학들이 모델로 삼고 배울 수 있는 선지식이 없다는 말이다.

조계종은 '사기집단'이다.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니 세속의 눈으로 좋은 절을 차지하려고 하고, 좋은 차만 타고 다니려 한다. 승가가 법과 부처님을 팔아먹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인정하는 불제자가 없다. 고우스님(봉화 각화사)

○ 우리가 가장 시급히 회복해야할 과제는 청정한 승가를 이루는 일이다. 이 시대의 한국승가는 개방성이 지나치다보니, 세속화되어 버렸다. 승가의 개방성은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혜선스님(칠곡 송림사)

○ 한국승가는 상당부분 물질주의와 결탁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마치 승려의 사유재산 축적이 허용되고 있는 듯한 사찰운영제도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는 개방성의 명백한 곡해다. 세등스님(남양주 수동재)

○ 초기불교 수행법이든 대승불교 수행법이든 모든 수행법은 연기법이 두루 통한다. 초기불교 수행법과 대승불교 수행법 모두 지관(止觀)을 바탕으로 한 수행법이기 때문이다. 지관이 없는 공부는 불교라 할 수 없다. 승가에서 노동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무소유를 실천해 간다면 자급적인 사원경제의 운영은 물론 잉여의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일종의 부채의식도 떨쳐버릴 수 있다. 홍선스님(김천 직지사)

현 상황 맞는 수행방편 개발 필요

○ 좌선도 수행의 한 방편이다. 하지만 좌선 자체가 깨달음일 수는 없다. 우리는 나를 바로 보는 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경전을 1시간이라도 읽고 수행했으면 좋겠다. 보명스님(경주)

○ 현재 한국불교는 간화선 일변도의 수행만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수행방편을 더욱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간화선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불교의 현 상황과 맞는 수행방편들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설파스님(부산 범어사)

○…초기불교는 출가 위주의 수행과 교단을 구성함으로써 현재의 모순을 낳았다. 출·재가가 나뉘면서 이미 어긋난 것이다. 이는 이분법적 사고가 이미 승가에도 깊이 박혀있음을 보여준다. 출·재가를 구분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정광스님(문경 심원사)

○…우리는 승가가 위기라고 하면서 승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너무 민감하다. 승가가 위기라는 것은 승가 내부에서 먼저 인식해야 한